

“자강이든 연대든 대선 이겨 정권교체 주역 되겠다”

국민의당 창당 1주년... 潘사퇴 계기 터닝 포인트 만들까

국민의당이 2월 창당 1주년을 맞았다. 특히 중도층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전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향후 역할과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1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회의를 이끌던 천정배 전 대표가 의기투합, 뜻을 올렸다. 당시 각종 우려와 기대 속에 탄생한 국민의당은 창당 두 달여 만에 치른 지난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6.74%의 정당 득표를 기록하는 등 과반을 일으키며 38석을 확보, 당당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야권의 안방인 호남에서 민주당을 압도하며 호남 제1당으로 우뚝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약재와 리더십 부재 속에 당의 존재감은 희미해져갔고 지난해 연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더욱 존재감을 잃으며 지지율 하락을 거듭해 왔다.

한참 흔들리던 국민의당은 지난 1·15 정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분위기가 '자강론'으로 가닥이 잡히며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나란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호재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서 박지원 대표는 “모든 것을 바쳐 당을 키우고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자강하고 연대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이 대결이 될 것이며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지도부는 대선 공약 및 메시지를 담은 종이를 뽑는 ‘돌잡이’ 행사도 했다. 또 1주년을 맞아 호랑이를 바탕으로 만든 당 캐릭터 ‘민호(民虎)’와 스포츠 경기 응원가를 연

순학규·김종인 등 물밑 접촉

反文 연대 제3지대 띄우기

당 캐릭터·당가도 공개

상시키는 새로운 당가(黨歌)도 공개했다. 이제 국민의당이 마주한 최대 시합대는 조기 대선이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를 계기로 지지율이 정체상태에 있는 안 전 대표를 띄우고 야권의 연대(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제3지대’를 제대로 띄워 대선판을 흔들어야 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순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이른바 권력독점 극복을 위한 개헌과 ‘문재인 패권 저지’를 기치로 어떤 통합과 연대의 밑그림을 그려내느냐가 대선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1일 저녁 손 의장은 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와 만찬을 갖고 개혁세력이 규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 ‘비문세력’의 주축인 김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 제3지대(黨) 정계개편의 밑그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손 의장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및 연대가 확실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김 전 대표와 손과 새로운 비문(비문재인)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의장과 김 전 대표가 손을 잡고 국민의당과 통합 및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전 공동상임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 권도갑 고문, 정대철 고문, 박주선 국회부의장, 손금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탄핵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론 무너지고 대선판 바뀔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전격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조기 대선 구도는 더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권 교체와 개혁 과제 실현 등을 위해 국민의당에 통합과 연립정부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일보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합 및 공동 연립정부를 제안했다.

▲ 국민의당은 패권 정치 청산 등 정치 개혁을 위해 창당한 당이다. 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민의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 의도가 담긴 제안이다. 국민의당을 소멸시키려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다.

-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인가. ▲ 그렇다. 패거리 정치에 합류하지 않

“우상호 연립정부 제안 진정성 없어... 자체 정권창출 가능”

겠다. - 국민의당 자체적 정권 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연립정부를 거부한다는 것인가. ▲ 국민의당 자체적인 정권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연립정부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인위적인 통합이나 연립정부는 적절치 않다.

- 연립정부가 대선 전 합의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 결선투표제는 헌법적 논란 등이 있지 않나. ▲ 여야가 모두 찬성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나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체적인 정권 창출 가능성은. ▲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은 충분히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안철수, 순학규, 정운찬, 천정배 등이 치열한 경선을 펼치면 국민적 지지를 견인하며 승리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무너진다. 민심은 문재인을 신뢰하지 못한다. 국민의당 후보는 합리적 보수 세력과 중도,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

- 희망사항 아닌가. ▲ 그렇지 않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판이 바뀐다. 보수진영 주자 지지율은 20% 내에 갇힐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 주자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일 대 일’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결국 민심은 합리적이고 준비된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가. ▲ 안희정 지지와 이재명 시장이 분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 장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붕괴 근거는. ▲ 우선 정치인으로 신뢰성이 없다. 대북송금특검 관련 논란, 지난 총선에서의 정계은퇴 발언 등 그는 정직하지 않다. 대선 주자로서 미래 콘텐츠도 부족하다. 대통령 당선시 북한 우선 방문, 사드 배

치 입장 논란 등은 그의 빈곤한 자질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 비전을 따라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공약도 얼마나 부실한가. 다른 사람이 써준 원고를 읽는 대통령은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비전도 충분치 않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 그는 출마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잔재 세력과 후보는 국민이 심판하고 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가) 그것을 잘 알 것이다.

- 순학규 의장과 정운찬 전 총리의 국민의당 합류 시기는. ▲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그렇다. 조만간 함께 할 것이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는 각오다.

-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보는가. ▲ 강력한 개혁주의자로 그동안 개혁을 고리로 움직였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상황이 조금 변한 것 같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세론 굳히기’ 전국 투어 재시동

전윤철 前감사원장 캠프 합류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최대 정적(政敵)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뒤로하고 2일 통합과 민생을 기치로 전국 투어를 재시동을 걸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 남해와 진주를 잇달아 방문했으며 이는 대선 레이스 초반의 ‘대세론’을 확산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이날 남해에 이어 진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

지를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론으로 ‘통합’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책 중심으로 민심에 어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한편, 전윤철(78)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전격 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문 전 대표나, 이를 수용한 전 전 감사원장도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는 불만을 심경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